

한 방

### 8체질 이야기 만성질환과 수맥파(2)

1207호 칼럼에서 지적했듯이 수맥파는 지구 고유의 파장인 지자기파가 수맥에 의해 변조, 증폭된 생체 유해파로 인체의 면역 기능을 현저히 약화시킨다. 또한 수맥파는 어떤 방법으로도 차단이 불가능한 강력한 유해파장이다.

따라서 최선의 방법은 우선 본인이 수맥파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제거하고, 집이나 직장에 수맥파가 흐르는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부터 피하는 것이다. 특히 금체질과 수체질의 경우에는 그 영향이 다른 체질에 비해 좀더 크다.

수맥파는 흐르는 위치에 따라 다양한 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 수맥이 머리를 지날 때는 불면증, 정신병, 우울증, 악몽, 치매 등 신경성 질환이, 수맥이 가슴 부위를 지날 때는 고혈압, 중풍 등이, 수맥이 다리를 지날 때는 관절염, 디스크, 신경통 등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수맥이 몸을 가로질러 지날 때는 위장병, 불임, 월경부조 등 각종 복부 질환이, 수맥이 공부하는 학생의 책상 밑을 지날 때는 집중력 저하, 학습장애, 사고력 저하, 만성피로 등이, 수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통

해서 지날 때는 악몽, 당뇨, 식욕 감퇴, 자살 충동 등이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수맥은 일반적으로 그 폭이 30센티 정도 내외로 좁게 흐르기 때문에 정확한 수맥 검사 후에 침대나 책상 등 가구 배치를 조금만 변경해도 수맥파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실제 임상에서 수맥파를 제거한 뒤에 각종 만성 질환이 즉시 사라지거나 현저히 감소한 사례가 많이 있다.

새집으로 이사간 뒤에 두통이나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나, 원인 모를 불치병이나 암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수맥 검사를 받아보기를 추천한다. 아무리 좋은 약이나 치료를 받더라도 수맥파 위에서 장시간 생활할 경우 면역력 저하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체질나라 한의원  
원장 고진욱 Lic, Ac.  
TEL (562) 673-8397  
www.my8body.com



치과

### 치주질환의 모든 것

#### ◆ 치주질환이란?

성인 한국인의 60% 이상이 감염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는 치주병(잇몸병, 풍치)은 치아 자체가 아닌 치아 주위 조직에 생기는 병을 말한다. 치아가 제 기능을 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치아를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하는 잇몸과 이빨리(치근) 그리고 치아를 받쳐주는 뼈(치조골) 등의 치주조직이 튼튼해야 한다.

치주 질환은 잇몸의 염증으로부터 시작되며 염증이 심해지면 잇몸에 손상을 주고 점점 진행되면 받치고 있는 뼈(치조골)까지 침범하여 뼈를 녹이게 된다. 뼈가 손상을 받으면 치아를 받치는 힘이 약해져서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지게 된다. 이처럼 치아를 잃게 되는 무서운 치주질환은 충치와 더불어 2대 치과 질환 중의 하나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병율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과거에 풍치라고 불리던 병이 바로 치주질환으로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으나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치료 후의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도 많다.

충치의 발병율은 20세를 전후해서 급격히 감소하지만 치주질환의 발병율은 30세 이후부터 연령에 따라 점차 증가하며 40~50세에 이르르면 성인의 60~70%가 이 질환에 걸려있다. 치아를 잃게 되

는 원인도 이와 같은 비율과 거의 일치하게 된다.

#### ◆ 치주질환의 원인?

구강내에는 수십억에 달하는 세균이 살고 있는데 이러한 세균들이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을 플라그(치태)라고 한다. 플라그 속의 세균은 주로 음식물의 당분을 이용하여 살아간다. 플라그는 모든 치아 표면에 생길 수 있는데 대부분은 치솔질에 의해서 제거되지만 치아와 치아사이나 치아와 잇몸 사이에 생긴 플라그는 치솔질에 의해서도 제거가 어려우므로 계속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부위에 남아있는 플라그 내에 세균들이 증식하여 독성물질을 내게 되어 점차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염증은 치조골로 침범되면서 치주질환을 일으키게 한다.

플라그는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딱딱한 석회 물질인 치석으로 변하여 계속해 잇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파괴된 치주 조직은 더욱 더 플라그의 생성과 집합을 도와주게 되어 이와 같은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

남태준 종합치과  
남태준 원장  
TEL (714) 871-4962



건강

### 비타민 알고 먹읍시다 관절염과 미세먼지에 좋은 소나무 유황

일찍이 우리 조상들은 유황과 참으로 가까이 했습니다. 과거 못 살았던 시절 소나무 속껍질로 죽을 쑤어 먹어도 건강을 잃지 않았던 것도 바로 소나무 껍질과 송진, 송홧가루 등이 바로 유황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홍삼의 효능은 진세노사이드의 유효 성분 때문입니다. 진세노사이드가 바로 유황아미노산이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산삼에는 식물성 유황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러나 소나무 유황에는 산삼의 몇 십 배의 유황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삼도 어디에서 캐느냐에 따라 약효 성분이 달라지겠지요. 소나무 숲 밑에서 자란 산삼이 일반 산삼보다 몇 배 더 많은 효과가 있는 것도 소나무 유황 성분의 영향 때문입니다.

소나무는 버릴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소나무 잎과 껍질에 들어있는 피크리게놀 성분은 혈액순환제로 세계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마지막 숯까지도 해독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유황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하는데 광물성 유황, 식물성 유황, 동물성 유황이 그것입니다.

- 광물성 유황 : 화산이나 지진 또는 유황 온천과 같이 지하에서 표출된 토유황(담황색)

- 동물성 유황 : 흔히 웅덩이라고 일컫는 곰의 썩개(돼지의 썩개도 마찬가지)나 우황청

심원의 주성분인 소의 담즙, 사향노루의 배꼽 주변에서 채취한 사향

- 식물성 유황 :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지만 대표적인 것은 인삼 속의 샤폘닌, 소나무 속의 유황 같은 독특한 방향을 가진 채소나 약초 등

근래에는 마늘, 양파, 쪽 상황버섯, 아가리쿠스, 케일 등에 많은 유황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이 유황아미노산이 암을 치료하는 탁월한 물질이라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또한 죽염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대나무의 속살이 유황아미노산 덩어리로, 소금을 채우고 입구를 황토흙으로 막고 소나무로 불을 지펴 죽염을 만드는 것 역시 유황성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천연 식이 유황을 통하여 무독성의 유황 성분을 쉽게 섭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세기가 영양소의 황제라는 '비타민 시대' 였다면 21세기는 '유황의 시대' 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황 성분이 다른 어느 원소보다 현대인의 건강 노선에 있어서 최대의 적이 되는 중금속, 유해 물질, 화공독을 제독하는 신비한 해독(解毒)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대체 의학 병원에서는 식물성 소나무 유황이 항암제, 해독제, 근육통 치료제, 통증 완화제, 항우울제, 염증 치료제, 피부 외용제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 문의: (714) 534-4938 Jack Son

가정의학

### 요로결석의 진단과 치료

#### ◆ 진단

옆구리에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있는 분들이 병원에 오게 되면 일단 의사는 통증의 위치와 심한 정도로 요로결석을 의심하게 됩니다. 특히 손으로 콩팥이 위치하고 있는 옆구리 부위를 탁탁 칠 때 심한 통증이 유발된다면 요로결석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확진을 위해서 소변 검사와 X선 사진을 찍습니다.

소변 검사를 하는 이유는 현미경으로 소변을 검사하면 적혈구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돌이 좁은 요관을 빠져나오면서 요관에 상처가 생겨서 미세하지만 출혈이 생기기 때문에 소변에서 적혈구들이 관찰됩니다. X선 사진에서도 돌이 보이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경정맥요조영술(IVP)이라는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돌이 어느 부위에 있는지, 신장 기능에 이상이 없는지, 요로가 좁아져 있는 않은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 ◆ 치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대개 돌의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첫째로 대개 요법입니다. 돌의 크기

가 5mm 미만으로 작은 경우는 자연 배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진통제를 복용하여 통증을 조절하면서 돌이 빠져나가길 기다립니다. 이 때 수액을 맞고, 물을 많이 마셔서 소변량을 늘려서 돌이 잘 빠져나오도록 합니다.

둘째, 크기가 5-20mm 사이의 결석은 체외충격과 쇄석술이 적절한 치료입니다. 체외충격과 쇄석술이란 수술 조작 없이 몸 밖에서 충격파를 발사하여 결석을 잘게 분쇄하여 자연 배출이 되도록 유도하는 치료법입니다. 쇄석술 후에 분쇄된 요석은 대개 2주 이내에 자연적으로 배출되며 3개월 후 시술의 성공 여부를 판정합니다.

하지만 3회 이상의 체외충격과 쇄석술에도 돌이 깨지지 않는 경우, 요관의 좁은 부위에 돌이 걸려서 내려오지 않는 경우는 직접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석이 방광이나 요도에 있는 경우는 거의 모두 방광요도경(방광 내시경)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오문목 가정의학비뇨기과  
원장 오문목 의학박사  
TEL (949) 552-8217

